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모형 탐색

오정아¹, 이영주^{2*}, 김평화³

¹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²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³충남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

Exploring The Career Attitude Prediction Model Of Multicultural Youth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Jung-A Oh¹, Young-Joo Lee^{2*}, Pyeong-Hwa, Kim³

¹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³Associate Research Fellow,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 주요 변인을 예측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마련의 근거 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하였고, SPSS 23.0 프로그램의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어머니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담았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진로태도, 의사결정 나무 분석, 자아존중감, 부모지지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1) the predicting career attitudes of multicultural youth, 2) the aim was to provide evidence-based data on career and policy development. A survey for a total of 1,335 multicultural youth and data were analyzed by data-mining decision tree with SPSS 23.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emale students showed satisfaction in life, self-esteem and support for mothers' career. Second, In boys,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Based on these results, it contains suggestions for career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 Multicultural youth, Career attitude, Decision tree analysis, self-esteem, parent support

1. 서론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이다. Arnett[1]은 청소년기를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면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는 중요한 시기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2,3]도 초기 청소년기 진로교육이 생애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기 진로탐색과 계획 그리고 진로결정을 위한 개인의 능력을 발달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해 학교에 진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8S1A5B5A07073961)

*Corresponding Author : Young-Joo Lee(ijoo65@hanmail.net)

Received March 30,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27, 2021

Published June 28, 2021

로전담교사 배치를 통해 진로발달을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교육 및 학업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였다[4].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5].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청소년에게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보편적 진로탐색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지만, 인적자원과 사회적자본이 충분한 원주민 청소년과 비교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기회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진로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된다. 따라서 정부가 자유학기제 정책을 통해 지역 간 체험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농산어촌 중소도시 등 체험자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추진[6] 한다고 해도, 특정 학년 동안 시행되는 이 정책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탐색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 시행되는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 정보제공 및 체험과 관련된 정책도 바리스타 교육이나 항공예약 발권시스템(CRS) 관련 자격증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미래지향적 진로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관련 연구의 대부분은 취학 전 아동에 초점을 두고 있거나 중도입국학생의 한국문화 적응 혹은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6]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혹은 진로태도에 대한 연구의 충분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최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진로개발역량[7],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8], 다문화 청소년의 학습흥미와 진로발달[9], 진로흥미와 진로인식[10], 자아인식 및 학업과 진로발달[11]의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변인 혹은 제한된 변인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있을 뿐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박하나 등[3]은 기존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한 점과 중도입국 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을 함께 인터뷰한 점, 인문계학생은 서울을, 특성화고 학생은 경기도를 조사하는 등 환경적 조건이 상이했기 때문에 다문화청소년 전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전혜숙 등[12]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을 살펴보았

는데, 이 또한 다문화 특수성으로 지목되는 이중문화 수용성이 배제되었고, 진로와 관계가 깊은 학업성적, 희망 교육수준 그리고 성취동기 등에 대한 변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의 주요 변인을 예측하는데 제약이 있다. 또한 학습수준과 진로 발달[13]을 주제로 한 질적연구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상징적 의미 구조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발달 욕구에 대해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교육부에서 진행한 초·중등학생의 진로교육 현황조사[14]에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일선 학교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자칫 차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학령기 진입하는 다문화자녀가 10만 여명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은 필요불가결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관련된 개인변인과 다문화변인, 진로 및 학교적응 등 변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진로태도 주요 예측요인을 도출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정책 및 교육현장에서 진로상담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마ining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주요 변인을 예측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요인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data'를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 패널 data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6차에 걸쳐 조사한 종단적 패널 자료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6차년도 패널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패널에 사용된 데이터 중 외국인 아버지 설문조사는 한국인 어머니에 의해 작성되어 외국인

아버지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sample은 제외한 패널 1,283명만 선택하여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태도

다문화청소년 진로태도를 측정을 위한 문항은 장래에 할 일을 정해놓은 정도,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는 정도 등 긍정적 진로태도 문항과 진로 선택에 따른 혼란, 진로 미결정 등의 부정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15]. 데이터마이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위해 군집분석 후 평균값으로 범주화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2.2 예측변수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수로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특성, 개인특성, 환경특성 변인을 살펴보았다[15]. 다문화 특성 변수로 언어능력, 이중문화경험, 이중문화수용태도, 다문화 수용성을 사용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수로 삶의 만족, 외모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및 위축, 성취동기 및 성적만족도, 학교성적을 사용하였다. 다

문화청소년의 환경특성 변인으로 가정환경은 가족지지, 부모양육태도, 부모진로지지, 부모학력을 사용하였고, 학교환경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집단괴롭힘 피해 변인을 사용하였다.

2.3 자료분석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예측모형을 탐색하기 위해 SPSS 23.0을 활용하여 의사결정 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 중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들의 분리(splitting)와 병합(merging)의 기준은 0.05(level of significance alpha=0.05)수준으로 설정하고,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위노드 10과 하위노드 3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3.1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 모형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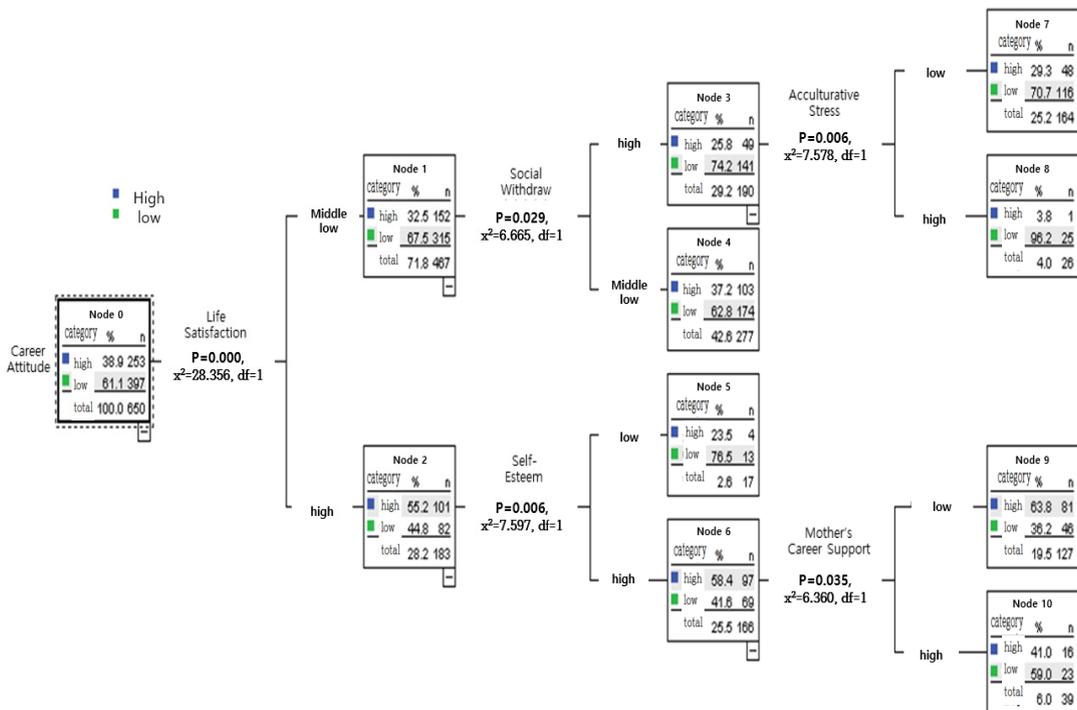


Fig. 1.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 모형

Fig. 1과 같이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태도는 38.9%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전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삶의 만족'이었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이 높은 경우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는 55.2%로 증가하였고, 삶의 만족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는 58.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높더라도, 어머니의 진로지지가 낮은 경우 진로태도는 63.8% 증가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수준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미래에 대해 준비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등의 진로태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진로지지는 진로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부모의 지지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여성 청소년의 진로태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문화 여학생의 진로태도에 대한 최종 결과는 Table 1의 이익도표로 확인한다. 즉, 다문화 여자청소년의 진로태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9번 마디로 어머니 진로지지가

낮은 경우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번 마디는 어머니 진로지지가 높은 경우 진로태도가 1.05 (105.4%)배 증가하였으며, 4번 마디는 사회적위축이 보통이거나 낮은 경우 진로태도는 95.5%로 나타났다.

Table 1. Gain Chart for Career attitud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female students)

Node	Node		Gain		Response	Index
	N(명)	%	N(명)	%		
9	127	19.5%	81	32.0%	63.8%	163.9%
10	39	6.0%	16	6.3%	41.0%	105.4%
4	277	42.6%	103	40.7%	37.2%	95.5%
7	164	25.2%	48	19.0%	29.3%	75.2%
5	17	2.6%	4	1.6%	23.5%	60.5%
8	26	4.0%	1	0.4%	3.8%	9.9%

3.2 다문화남학생 진로태도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태도는 39.3%로 나타났다. 예측변인이 투입되었을 때,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아존중감'이었고, 그 다음으로 '우울'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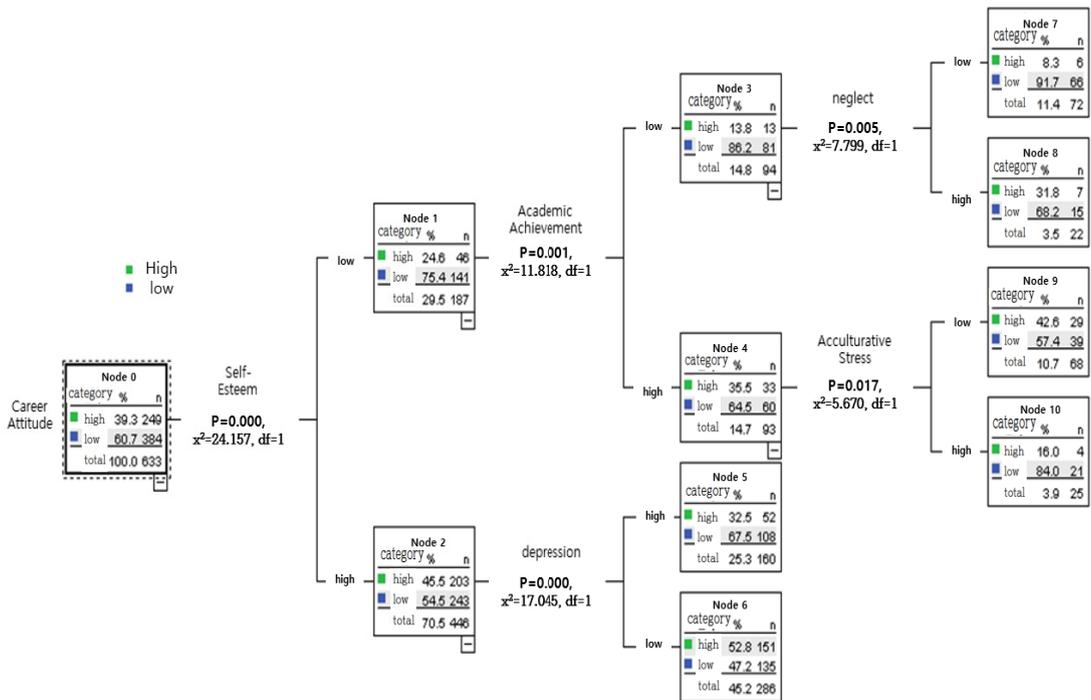


Fig. 2.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 예측 모형

경우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는 45.5%로 증가하였고,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우 진로태도는 52.8%로 증가하였다. 이는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낮을수록 높게 예측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에 대한 최종 결과는 Table 2의 이의도표로 확인되는데,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가 가장 높은 경우는 6번 마디로 우울이 낮은 경우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9번 마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진로태도가 1.08(108.4%)배 증가하였으며, 5번 마디는 우울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는 82.6%로 나타났다.

Table. 2. Gain Chart for Career attitud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male students)

Node	Node		Gain		Response	Index
	N(명)	%	N(명)	%		
6	286	45.2%	151	60.6%	52.8%	134.2%
9	68	10.7%	29	11.6%	42.6%	108.4%
5	160	25.3%	52	20.9%	32.5%	82.6%
8	22	3.5%	7	2.8%	31.8%	80.9%
10	25	3.9%	4	1.6%	16.0%	40.7%
7	72	11.4%	6	2.4%	8.3%	21.2%

4. 결론 및 제언 결과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도출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삶의 만족이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어머니 진로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은 다문화여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태도가 더 높게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일수록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 Lent와 동료들[6]의 주장을 지지함과 동시에 청소년기 진로태도가 삶의 만족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진학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삶의 만족이 진로태도 예측의 중요한 변인으로 지목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다문화여학생의 진로태도는 감소되었다.

이는 부모지지가 흑인계 미국인 청소년의 진로확신성에 영향을 준다는 Constantine 등[16]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이지만, 부모지지와 간섭이 높고 관여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이 낮다는 연은모와 최효식[1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관심과 과잉기대가 자녀의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Sharm[18]의 주장을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지원은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의 동기부여를 제공[8]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계획 수립과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19]. 하지만, 한국 언어와 문화가 서툰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 자녀에 대한 진로지지는 매우 어려운 과업일 수 있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어머니 상당수가 자녀의 학업과 진학 및 진로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진로지지는 여학생의 진로태도 예측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다문화 여학생의 삶의 만족 수준이 낮고 사회적 위축이 높은 경우 진로태도 예측 비율이 감소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진로태도 예측의 비율이 소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웃돌고 있어 명실상부 다문화사회로 볼 수 있다. 원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공생하고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수용성이 기반이 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민족에 대한 이해교육을 기반으로 세계시민의식 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 대상의 인간존엄 및 세계시민의식 교육 연수가 상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남학생은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결정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21]의 주장과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아도 성취동기가 높고 학교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에는 진로태도가 증가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진로태도 향상에 중요한 변인이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아도 성취동기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경우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자아존중감 다음으로 다문화 남학생의

진로태도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은 우울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이 낮은 경우 진로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해숙 등[11]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우울이 청소년의 진로와 관계가 깊다는 기존연구[22]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렇듯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 예측요인이 다소 상이하게 도출된 것은 이들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제언을 담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 다문화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있어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진로지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어머니들이 자녀의 진로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다문화부모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전문 강사 초빙에 어려움이 없지만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진로교육 전문 강사 발굴이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상이하여 도·농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함께 진로교육 전문 강사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양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및 사회문화 심리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전문상담사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 지역의 보건소가 함께 연계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진로태도의 차이가 나타난 만큼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진로상담 및 지도를 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하나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주요변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더

욱이 성별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의 차이를 밝혀낸 것은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책마련에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이 결과를 기반으로 후속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REFERENCES

- [1] J. J. Arnett. (2014).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Boston : Pearson.
- [2] M. C. Ginevra, L. Nota & L. Ferrari. (2015).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1), 2-15.
- [3] H. N. Park, Y. D. Jo & Y. K. Park. (2013). The State and Problems of career education for high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Focusing on Comparative Case Study of General high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6(1), 21-49.
- [4] Ministry of Education(2016). *For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the free semester system - the 2nd 5-year career education master plan (draft) [2016-2020] press release*.
- [5] J. H. Kim. (2019).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Experiences on Career Maturity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Low Income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1-24.
- [6] R. E. Lent. (2004). Toward a Unify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 on Well-being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4), 482-509.
- [7] M. K. Kim. (2015). A Study of Adolescents' Career Capacity Program Effects on Career Decision Efficiency and Career Maturity in Multicultural Families.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13(3), 147-171.
- [8] M. S. Kim & M. H. Lee. (2019).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adolescents' career adaptabil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1), 19-34.
- [9] B. H. Cho. (2011). Learning Interest and Career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219-245.
- [10] B. H. Cho. (2012). Career Interest and Career Awaren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1(2), 171-192.
- [11] J. H. Kim. (2019).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Experiences on Career Maturity and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Low Income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2(3), 1-24.

[12] H. S. Jeon, J. Y. Kim & J. S. Chun. (2019). Factors Associated with Career Decision Making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6(10), 259-290.

[13] J. S. Jeon & E. T. Lim. (2017). hermeneutic study on the study and career development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0(2), 25-63.

[14] Ministry of Education(2019). *2019 Press release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1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2017).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nel Study 6th Data User Guide.*

[16] M. G. Constantine, B. C. Wallace & M. M. Kindaichi. (2005). Examining Contextual Factors in the Career Decision Status of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3(3).

[17] E. M. Yeon & H. S. Choi. (2019). Latent profile analysis i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children's career,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Latent profile analysis i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 of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ing on children's career, psychological and academic outcomes*, 19(8), 305-325.307-319.

[18] V. Shrmr. (2014). Career Decision-making If Adolescents in Relation to Their Family Environment: An Empirical Study. *Indian Journal of Health and Wellbeing*, 5(6), 702-706.

[19] S. A. Lim & S. You. (2019). Long-Term Effect of Parents'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6(1), 48-61.

[20] Ministry of Gender Equaliry and Family (2019). *2018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1] D. H. Han & Y. I. An. (2019). Relationship among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Depres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ulti cultural Acceptanc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9.

[22] P. J. Rottinghaus, N. Jenkins & A. M. Jantzer. (2009). Relation of Depression and Affectivity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Occupational Choice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3), 271-285.

오 정 아(Jung-A Oh)

[정회원]



- 2005년 : 고려대학교 사회복지석사
- 2015년 : 충북대학교 문학박사
- 2021년 ~ 현재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청년, 가족복지
- E-Mail : Musicka@hanmail.net

이 영 주(Young-Joo Lee)

[정회원]



- 1990년 : 중앙대학교 석사 (사회심리학 전공)
- 2007년 : 공주대학교 문학박사 (사회복지 전공)
- 2008년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가족복지, 다문화

· E-Mail : ijoo65@hanmail.net

김 평 화(Pyeong-Hwa,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충북대학교 문학석사
- 2019년 8월 : 충북대학교 문학박사
- 2019년 11월 ~ 현재 : 충남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 청년, 가족복지
- E-Mail : sakwa0916@hanmail.net